

# 高물가 압박 ... 가계지출 57만원 더 늘어

올 상반기, 소득 제자리 ... '삶의 질' 하락

교통·식료품·대학 등록금 인상 가장 커

올해 상반기 물가상승으로 가계부담이 추가로 부담한 돈이 10조원, 가구당 5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로 급증한 규모다.

지출 항목별로는 국제유가와 곡물가의 급등에 따라 교통비·식료품비의 추가 부담이 컸고 대학 등록금 인상을 교육비 추가지출도 적지않았다.

△상반기 인플레이션 비역 ... 가구당 57만원 = 16일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가계의 국내소비지출(전체 국내소비지출-비거주자 국내소비지출)은 올해 상반기 241조915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조9천891억원(8.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실질 증가율 3.8%에 해당하는 8조4천370억원을 제외한 9조5천520억원이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 지출

이다. 통계청의 2008년 추계 가구수인 1천667만3천162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가구당 57만원3천원으로 계산됐다. 1년전과 똑같은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했다더라도 가구당 57만원을 더 부담한 셈이다.

상반기 기준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지출은 2001년 8조2천450억원에서 2002년 4조3천253억원으로 줄었다. 이후 2003년 6조5천964억원, 2004년 5조5천969억원, 2005년 6조6천422억원, 2006년 4조8천451억원, 지난해 5조1천600억원 등 5조~6조원대에 머물다 올해 9조5천억원대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해외지출에서도 인플레이션이 가세되면서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 지출이 231조5천587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49조5천956억원으로 18조369억원(7.8%)이 증가했다. 실질증가율 2.9%에 해당하는 6조7천152억원을 제외한 11조3천217억원이 인플레이션 비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당 68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고유가 관련 항목 '직격탄' ... 교육비도 급등=한은이 집계하는 12개 소비지출 항목 중에서는 교통비와 전·월세·주거광열비, 식료품·비주류음료비



가 물가상승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통비는 작년 상반기에 비해 2조9천281억원(11.4%)이 증가했는데 실질증가율은 3.3%에 불과했다. 실질증가분 8천442억원을 제외한 2조839억원이 물가상승에 따른 지출이었다.

식료품·비주류음료비도 2조7천887억원 증가했는데 실질증가율은 8천957억원이고, 나머지 1조8천930억원이 가격상승분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월세·수도광열비도 3조4천880억원의 추가지출이 생겼는데 이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2조2천805원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지출이었다.

각종 등록금 인상으로 교육비도 인상폭이 컸다. 교육비의 실질증가율은 2천640억원(1.9%)에 불과했지만 전체 지출증가율은 1조2천567억원(9.1%)에 달했다. 등록금 인상을 9천927억원의 추가부담이 생겼기 때문이다.

의류·신발비는 전체 지출증가액 4천563억원의 절반인 2천741억원, 의

류·보건은 1조612억원 중 3천547억원, 음식·숙박비는 1조419억원 가운데 66%인 9천200억원이 각각 물가상승분이었다.

△검세효과 모두 상쇄=이처럼 가계의 인플레이션 부담이 커진 것은 국제원자재가 인상에 원·달러환율의 상승이 겹치면서 국내 물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격요인을 제외한 실질기준 소비지출 증가율은 지난 상반기에 3.8%로 지난해 같은 기간(4.0%)에 비해 낮아졌지만 가격변형명목기준 증가율은 올해 8.1%로 작년의 6.5%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대내외적인 여건의 악화로 가계의 소비지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지출부담은 가파르게 커지는 악순환인 것이다.

당장 5%대 물가상승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못지 않은 대규모 추가지출이 불가피해 연간으로는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 '빛 있는 가구' 2배로 늘었다

2006년엔 5가구 중 4가구 빛져

지난 2000년 이후 빛이 있는 가구의 비중이 두배로 늘어 2006년에는 5개 가구 가운데 4개 가구 이상이 금융기관 등에서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가계 빚은 대부분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쓴 것으로 부채증가는 가계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승훈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과 이병민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16일 한국재정학회를 통해 공개한 '2000년 이후 가계의 자산 및 부채보유 실태변화 분석' 보고서에서 부채 보유가구의 비중은 2000년 55.4%에서 2006년 85.2%로 29.8% 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기관 대출을 갖고 있는 가구는 2000년에 42.9%였으나 2006년에는 82.8%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금융기관 대출 중에서도 외상이나 합부미상환액을 보유한 가구가 2000년 10.3%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에는 69.5%로 거의 7배나 높아졌다.

마이너스 통장 미상환액을 갖고 있는 가구도 2000년 8.3%에 불과했지만 2006년에는 26.9%로 3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현금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구도 2000년에는 6.3%에 불과했지만 2006년에는 13.5%로 역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부채보유가구의 전체 평균부채액도 2000년 3천만 원에서 2006년 4천731만원으로 57.7%나 증가했다. 이처럼 늘어난 부채는 주로 부동산 구입을 위해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에는 부동산 구입을 위해 부채를 쓴 가구의 비중이 21.1%인 반면 2006년에는 41.7%로 거의 두배나 됐다.

가계 빚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실지표도 악화돼 2000년에는 경상소득 대비 부채총액 비중이 70.8%였지만 2006년에는 126.0%로 100%를 훌쩍 넘었다. 총자산대비 부채총액 비중 역시 같은 기간 35.1%에서 40.2%로 뛰었다.

연합뉴스

## 수입물가 상승률 내림세로

8월 전달비 4.4% ↓ ... 1년 2개월만에 하락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지난 달 수입물가 상승률이 1년2개월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8월 수출입물가 동향'에 따르면 수입물가는 7월에 비해 4.4% 내렸다. 전월대비 수입물가가 하락세를 나타낸 것은 2007년 6월 -0.3% 이후 처음이다.

작년 동월 대비로는 42.6% 올라 여전히 높은 오름세를 유지했으나 상승폭은 둔화했다. 작년 동월대비 상승률은 7월 50.6%로 1998년 2월의 53.9% 이후 10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8월에는 8%포인트 떨어졌다.

품목별 전월대비 등락률을 보면 원자재에서 원유가 12.3%, 동광석 7.3%, 아연광석 12.1%, 액화천연가스 1.9%, 대두가 11.0% 각각 하락했다. 중간재에서는 경유 19.1%, 휘발유 13.5%, 프로판



가스 2.9% 등의 비율로 각각 떨어졌다. 소비재에서는 냉장어유가 15.9%, 대두가 11% 하락했으나 컴퓨터는 11.3%, 소프트웨어는 6.0% 각각 상승했다. 한편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1.4% 하락했고 전년 동월대비로는 21.9% 상승해 전월의 25.1%보다 둔화했다.

연합뉴스



가을 느낌 물씬 훈수 도자기

본격적인 가을 훈수시즌을 맞아 16일 서울 청계8가 한국도자기 사옥매장을 찾은 여성 고객들이 가을 느낌이 물씬 나는 훈수 도자기 세트를 살펴보고 즐거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 8월 무역적자 38억달러

잠정치 보다 6억달러 늘어 연중 최고치 육박

8월 무역적자가 잠정치보다 6억 달러 가까이 늘어나며 연중 최고치였던 1월(39억9천만 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확정 집계됐다.

관세청은 16일 지난달 수출이 367억8천900만 달러, 수입이 406억100만 달러로, 무역적자가 38억1천200만 달러로 확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8월 수출액 확정치는 이달 초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것보다 6억300만 달러 작은 것이며 수입액은 2천만 달러가 줄어든 것이다.

8월 수출이 작년 동기대비 18.7% 늘었지만 수입은 원자재가 고공행진 등의 영향으로 37.0%나 늘어난 것이 적자 확대의 주요인이다.

이에 따라 올해들어 8월까지 적자 누계액도 123억4천400만 달러를 기록, 120억 달러선을 뛰어넘었다.

대(對)일본 무역적자가 8월까지 누계액이 231억7천1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4억7천400만 달러 늘어나며 200억 달러선을 넘어섰다.

연합뉴스

## 정부 "펀드, 대량 환매땀 유동성 지원"

韓銀 등 동원 ... 최악땀 '시장안정기금' 조성

글로벌 금융시장의 잠재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글로벌 증시 부진과 미국발 신용위기가 지속돼 주식형펀드의 대량환매(펀드런) 사태가 발생하면 한국은행과 은행 등을 통한 유동성 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최악의 경우 '시장안정기금'을 조성한다는 방안도 세우려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금융당국과 증권·자산운용업계 따르면 정부가 자본시장 상황 악화에 따른 펀드 대량환매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은 컨던전시플랜(비상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비상대책을 수립해둔 이유는 올해 들어 국내외 증시급락으로 펀드손실이 커져 자금시장 내부에선 대량환매 우려가 끊이지 않고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실제 해외주식형펀드는 7월 이후 10일 현재까지 1조9천억원의 자금 순유출을 기록했다. 정부는 일부 자산운용사나 펀드에서 대량환매가 발생하면 1단계로

각 자산운용사가 자체적으로 자금차입을 추진한 뒤 자산매각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자 간 형평성이 깨질 우려가 있을 경우 환매연기를 추진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 자산운용사는 대량 환매 청구 발생시 펀드자산 총액의 10% 내에서 차입이 가능하며 6주 내에 수익자 총회를 거쳐 환매연기도 할 수 있다. 또 여기에 펀드 판매자들이 공동으로 크레디트 라인(신용공여 한도)을 설정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합뉴스

## "美 금융사태, 한국 신용등급 부정적 영향 없다"

채정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한국사무소 대표는 16일 "미국 금융시장, 리먼브러더스와 메릴린치, AIG 사태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 대표는 이날 KBS 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해 "리먼브러더스와 메릴린치 관련 한국 금융기관의 여신이 1조5천억원 정도이며, 그 규모로는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현재 진행형이어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

이 있다는 게 문제"라며 "추가 부실과 그에 따른 영향, 심리적 요인이 가세하면 파괴력이 있을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 대표는 지난주 정부의 외국환환경기금채권(외환채) 발행 연기 역시 신용등급에 영향을 없다고 전하며 "리먼브러더스, 메릴린치, AIG 사태로 외환채 발행은 (내 생각으로는) 안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P는 현재 한국 신용등급 'A', 전망 '안정적'을 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사)오일철육회	청소노동/상담사 직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18	062-373-5180
동양생명	재무설계/자산관리/투자보장자산 상담 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18	016-430-8691
재성건설(주)	경리사무원/건설직/모집/자격증소지자	고졸/경력2년	1800~2000	09/20	062-234-7778
현진주디자인연구소	정규직 시크디자이너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2	062-233-9235
한국특수가스(주)광주지점	운행, 배송직 업무 담당사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9/23	062-954-3355
씨에이치솔루션(주)	SK텔레콤 멀티상담원/하나로텔레콤 영업사원	고졸/경력무관	2400~2600	09/23	02-456-9799
(주)에이나라	컴퓨터 사무기기 A/S 정규직 사원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9/23	062-224-6073
(주)한국공공엔지니어링	정규직 비파괴검사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9/24	062-369-0790
아름다운사람들미용학원	[강사/부/교무부/관리부]2008 하반기 직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4	062-233-6668
무동(사)	납품 및 기술영업 정규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5	062-528-8114
청화산업(주)	정규직 생산부 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9/25	062-973-2043
미래에셋생명-본사	전국(펀드&변액)전문상담 보정150만.평균450만원	고졸/경력무관	4000~5000	09/26	02-3425-0477
삼성전자서비스(주)GCA광주점	삼성전자서비스 A/S엔지니어 교육생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30	062-971-4640

(광주잡코리아 512-6120 제공)

## ADB "한국 내년 인플레이션 3.8% 예상"

내년도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당초 예상보다 다소 높은 3.8%가 될 것이라고 아시아개발은행(ADB)이 15일 발표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아시아 각국의 올해 및 내년도 인플레이션을 수정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당초 예상치 3.4%보다 높은 4.7%의 인플레이션을 보였으며 내년에도 ADB가 연초 예상했던 3.0%보다 높은 3.8%의 인플레이션을 나타낼 것으로 분석했다.

ADB는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아 올해와 내년 모두 당초 예상했던 수치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나타낼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은 당초 5.5%로 예상됐던 올해 인플레이율이 7.0%로 상향조정됐으며 내년도의 5.0% 예상도 5.5%로 올라갔다. 대만 역시 2.3%와 1.6%로 예상됐던 올해와 내년의 인플레이율이 3.8%와 2.5%로 크게 올라갔다.

최근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있는 인도는 4.5%이던 올해 인플레이율이 11.5%로 크게 올라갔고 내년에도 당초의 5%보다 훨씬 높은 7.5%의 인플레이율에 예상됐다.

연합뉴스